

한중일 경제통상포럼 연구위원회 참석 및 한중일 첨단산업 협력 주제발표

-장윤종 선임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I. 출장개요

- 출장자 :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장윤종 소장
- 출장기간 : 2011년 10월 28일(금)~10월 30일(일) (2박 3일)
- 출장지역 : 중국 요녕성 대련
- 출장목적 : 중국 대련에서 개최하는 <중일한 FTA 민간고층포럼전문가위원회 1차회의> 참석 및 한중일 3국의 첨단산업 협력에 관한 주제발표
- ※ 포럼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첨파일(한중일경제통상포럼 소개.hwp) 참조

○ 출장일정

일자 (10월)	시간	방문지	내용
28(금)	오전	인천공항	· 인천공항 출발 - 요녕성 대련공항 도착
	오후	대련시 은범호텔	· 회의등록, 개막식 및 리셉션
29(토)	오전		· 주제1: 표준인증, 표준화, 산업사슬, 기술교류, 지적재산권 (※첨단산업 주제발표: <첨단산업의 한중일 협력: 현황과 과제>)
			· 주제2: 금융, 화폐, 투자
	오후		· 주제3: 녹색경제, 에너지
			· 주제4: 제2회 포럼 준비업무 회의
		· 폐막 리셉션	
30(일)	오전		· 대련시 관광
	오후		· 대련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II. 복명 내용

1. 회의 개요

(1) 회의 일정

제2일 2011년 10월 29일		
시간	일정	장소
8:30-8:50	<p>개회식</p> <p>1 사회자 : 천용제(陳永杰)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부 비서장</p> <p>1 발표 : 요녕성 혹은 대련시 지도자 (20분)</p>	2F鴻福宮
8:50-10:20	<p><u>기술표준, 인증, 산업체인, 기술교류, 지식재산권</u></p> <p>1 발표 (각 20분) : 쉬허핑(胥和平) 국가과기부 연구실 주임 나베시마 카오루(鍋嶋郁) 아시아경제연구소 기술혁신·성 장연구그룹장 강병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윤중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p> <p>1 사회자 : 천용제(陳永杰)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부 비서장</p> <p>1 토론 (30분)</p>	2F鴻福宮
10:20-10:25	휴식	2F鴻福宮
10:25-11:55	<p><u>금융, 통화, 투자</u></p> <p>1 발표 (각20분) : 탄야링(譚雅玲) 중국외화연구원 원장 자오지양린(趙江林)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소경제연구실 주임 다나카 슈우(田中修) 일중산학관교류기구 특별연구원 카리코미 순지(荻込俊二) 미즈호총합연구소 아시아조 사부 주임연구원 문우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p> <p>1 사회자 : 조창상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과장</p> <p>1 토론 (30분)</p>	2F鴻福宮
11:55-13:20	<p>오찬</p> <p>1 발표 : 중국측 전문가 키요카와 유지(清川佑二) 일중경협 前이사장</p>	2F鴻福宮

	1 사회자 : 동북아개발원 대표	
13:20-14:20	휴식	2F鴻福宮
14:20-16:00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경제, 에너지</p> <p>1 일본측 : 제2회 한중일경제통상포럼(도쿄) 준비상황 설명(10분)</p> <p>1 발표 (전문가 3명, 각20분) :</p> <p>조우텐용(周天勇) 중국공산당간부학교 전략연구소 부소장</p> <p>량안(梁彦) 국가공업정보화부 정책법규사 부사장</p> <p>키요카와 유지(清川佑二) 일중경협 前이사장</p> <p>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p> <p>김창섭 경원대학교 IT에너지학과 교수</p> <p>1 사회자 : 아베 카즈모토(阿部一知) 도쿄전기대학교 교수</p> <p>1 토론 (30분)</p>	2F鴻福宮
16:00-16:05	휴식	2F鴻福宮
16:05-16:25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企業發言</p> <p>1 발표 :</p> <p>지구보호돌·제지기업 소개 (20분)</p>	2F鴻福宮
16:25-17:30	<p style="text-align: center;">제2회 포럼 준비회의</p> <p>1 사회자 : 일본 사무국</p> <p>1 3국 사무국</p>	2F鴻福宮
17:30-18:30	자유토론	2F鴻福宮
18:30-20:00	<p style="text-align: center;">만찬</p> <p>1 발표 : 중국측</p> <p>1 사회자 : 요녕성 지도자</p>	2F鴻福宮

(2) 회의 참석자

한국

성명	소속	지위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장윤종	산업연구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
문우식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교수
강병구	고려대학교경영학부	교수
김창섭	경원대학교 IT에너지학과	교수
조창상	기획재정부통상정책과	과장
장준혁	기획재정부통상정책과	사무관
송창의	한국무역협회지역연구실	실장
이봉걸	한국무역협회지역연구실	수석연구원

□ 중국

- 鄭新立(정신리)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상무부이사장
- 張蘊嶠(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
- 張小濟(장샤오지)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장
- 張小濟(장샤오지)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장
- 白津夫(바이진푸) 중앙정책연구실 경제국 부국장
- 李明星(리밍싱) 중국기업연합회 부이사장
- 畢吉躍(비지야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소장
- 周天勇(조우텐용) 중국과기대학 교수
- 胥和平(쉬허핑) 국가과기부 연구실 주임
- 陳文玲(첸원링) 국무원 정책연구실 종합사(국) 사장(국장)

□ 일본

- 田中修(다나카 슈우) 일중산학관교류기구 특별연구원
- 阿部一知(아베 카즈모토) 도쿄전기대학 교수
- 鍋嶋郁(나베시마 카오루) 아시아경제연구소 기술혁신·성장연구그룹장
- 染野憲治(소메노 켄지) 도쿄재단 객원연구원
- 清川佑二(키요카와 유지) 일중경협 前이사장
- 久留島守廣(쿠루시마 모리히로) 동양대학 교수
- 坂本尙史(사카모토 나오후미) 히타치총합계획연구소 부장
- 苅込俊二(카리코미 순지) 미즈호총합연구소 아시아조사부 주임연구원

(3) 주제발표 내용

※ 별첨 파일 참조(발표내용-한국.zip, 발표내용-일본.zip)

2. 주요 토의내용

□ 금융분야

- (중국측) 무역 활성화에 금융이 중요함. 일본이 아시아 금융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하며, 3개국 교역에서는 각국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단위에서 즉각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시범모델로 각국이 특정 지역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임. 중국은 한 일과의 협력이 많은 요녕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글로벌 위기 대응에서도 3국이 협력하면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임.
 - (일본측) 일본금융계는 FTA 체결과 관련하여 중국의 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희망함.
 - 외국은행 송금제한 해제, 생명보험, 재산보험 허용, 외국채권 액수 제한 완화, 지사설립 자유화, 금융 인가 지원, 증권사 외국자본금 출자비율 완화(현재 20% 한도에서 신규 33%까지 허용),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인허가 개선, 생명보험 분야 외자 50%까지 허용 하나 완화 등을 요구함.
- ☞ 이에 대해 중국측은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일본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증권, 은행, 보험 개방은 노력하겠지만 너무 빠른 진행은 어렵다고 반박함. 중국의 반박에 대해 일본측은 중국의 개방을 재차 요구하면서,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공동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양국의 대립 속에 본인은 경쟁론 vs 경쟁력론을 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알려줌. 즉, 중국은 경쟁력이 약해 경쟁에 당장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만 역사의

경험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선 경쟁력 제고 후 경쟁 개방 option 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함.

○ (한국측) 중국의 금융제도는 변화가 필요한 바, 일본의 경험과 노하우를 참고하여 자유화를 추진해나가기를 희망.

-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중요한 바, 위기 예방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AMRO 국제기관 설립을 추진할 필요

- 아시아 공동화폐와 관련해서는 EU 추진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수준이 다른 경우” 한 화폐를 이용할 때 발생할 어려움 극복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또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필요

○ 한국은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아세안+3 체제’ 하에서 SWAP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최근 한중, 한일 SWAP 규모가 6-7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한중일은 별도의 금융협력을 통해 이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

-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환율이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어 어려움이 초래되는 바, 3국간 환율 안정을 도모하든 정책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

○ 한중일 무역거래의 20% 정도를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

□ 투자분야

○ (중국측)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많으나 중국의 한일에 대한 투자는 많지 않음.

○ 한일은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높아 투자자유화 협상에서 중국이 양

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함.

- 이와 관련 중국은 세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 내국민대우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은 인허가/M&A에 대한 심사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심사허가제에 변화가 필요하게 됨.
 - 개방 약속과 관련하여 한일은 negative system을 적용하는 반면, 중국은 positive system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 발생 소지 있음.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은 WTO 방식을 적용하기를 희망함.
- 예상되는 중국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낮은 수준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최저한의 합의를 도출하면 먼저 FTA를 체결하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upgrade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음. 처음부터 높은 수준을 지향하면 중국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됨.
 - 이와 함께 과도기간을 허용한다든지 산업차원에서도 각국이 각자의 이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즉 자국에 민감한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은 현재 해외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바, 중국이 투자 규제를 풀지 않으면 동남아로 투자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자유화를 적극 추진해주기를 희망

□ 첨단산업 협력

○ (한국측) 본인은 발제를 통하여 한중일은 현재 수직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첨단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LCD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면서, 국가단위의 경쟁이 심화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에서 3국간 수직협력이 강화되면서 기업간 경쟁이 활성화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이에 대해 3국간 경쟁 실태와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논의는 마무리됨.

□ 녹색경제와 에너지

○ 3국간에 큰 이견이 없이 에너지/환경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특히 신재생에너지, 장비 등에서 협력 전망이 밝다는 점이 강조됨.

- 일본은 환경규제 기준은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0년에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음을 밝힘.

- 한국은 한중일 3국간 전력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종합토론

○ 중국측은 FTA를 빨리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감한 분야는 모두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우면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FTA를 체결하는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은 FTA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체결 그 자체보다도 일정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특히 일본은 한 지역을 택해서 FTA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일본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중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본인은 FTA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하되 중국측이 희망하는 특정 지역(예: 요녕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므로, 적어도 양국 간에는 Free Trade Area를 모색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즉 Two track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함.